

2014 2호

구리문화 소식

구리문화원



지혜를 통해 보는 인생의 교훈

지혜와 빛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

풍경이 빛에 따라 무수하고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도 지혜를 통해 인생을 다양한
각도로 보게 되며 교훈을 얻게 된다.

- 쇼펜하우어 -

「구리문화원의 날」 선언문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복된 고장의 시민임을 자부하며 영광스러운 내 고장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주역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선조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문화와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우리 후세에 삶의 지표가 되도록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지역 고유문화의 발굴·보전·전승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둘째, 문화예술을 아끼고 정겨운 문화풍토를 조성하여 슬기로운 삶의 토대를 만든다.

셋째, 항시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폭넓은 지식·정보 습득을 위하여 연구 및 연수에 노력을 경주한다.

넷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적극 펼친다.

다섯째,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문화유산과 향토예술을 꽃피워 간다.

2011년 6월 24일

구리문화원 임원일동



목 차



지해를 통해 보는 인생의 교훈 「구리문화원의 날」 선언문	2~3
구리시의 새로운 도약 구리문화원 제7대 김문경 원장 선출	5~6
〈민선6기 제14대〉 박영순 구리시장 취임 〈제28회〉 고구려대형 온달장군 추모제향	7~8
구리동구릉 문화제 「구리동구릉문화제」 왕, 세자 선발	9~10
구리문화원 임원연수 〈제24회〉 구리시민백일장 스케치	11~12
〈제19기〉 구리문화학교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구리문화학교 발표회 이모저모	13~14
전통성년례 제10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15~16
예절지도강사 양성교육 찾아가는 전통예절 체험	17~18
제14회 구리 코스모스 축제 현장 제3회 구리시 평생학습축제	19~20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제9대 손태일 센터장 취임	21
구리상록회, 청소년 무궁화 예술경연대회 개최	22
구리시니어클럽 사업 활동	23
특별기고 - 정(情) / 경춘신문 논설고문 안영기	24
아차산 발굴의 숨은 공로자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박영섭	26
윤중선생을 만나다 / 김지희	30
문화정보 - 유네스코 세계유산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 남한산성, 인류의 유산이 되다 떡국	35~36 37~38
전통예술품 - 방패연 꽃문살	39~40
천연기념물 - 제228호 흑두루미	41
나라밖 여행의 기술 - 멋진 이탈리아를 소개합니다 / 에디터 박은경	42
제 49차 문화유적답사	43
2014 하반기 주요 행사 2015 상반기 주요 행사	44~45
구리문화원 문화학교 제20기 수강생 모집	



구리시의 새로운 도약



구리문화원장
김 문 경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문화는 삶을 담은 그릇이며, 인류가 창조한 정신적 소득이다'라고 합니다. 구리문화원에서는 구리시의 아름다운 문화와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아차산 지표조사를 통해 제4보루와 시루봉 발굴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고구려의 역사문화를 탐사해왔습니다. 또한 2000년에는 고구려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 '구리시의 민속문화', '구리시 지명유래', '조선왕조이야기' 등의 책자를 꾸준히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가 자주성을 찾을 때, 나라는 흥(興)한다"라고 합니다. 신라의 문화는 통일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었고, 세종대왕의 문화는 역사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구리시는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힘찬 도약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소통하고 화합하여 지역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Mind)로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2014년 청마(靑馬)의 해에 소원하셨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15년 청양(靑羊)의 해에는 가내(家內)에 올해보다 더 많은
행운과 행복과 건강이 충만(充滿)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월 4일(화) 11시 보륜부페



구리문화원 제7대 김문경 원장 선출

2014. 11. 4(화) 11시
보륜부페

11월 4일(화) 보륜부페에서 개최된 구리문화원 임시총회에서 전체 회원의 지지를 얻은 현 김문경 원장이 제 7대 원장으로 무투표 당선되었다. 김문경 원장은 1941년 충북 증평 출신으로 재향군인회 2~5대 회장과 새마을 지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제10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문경 당선자는 당선인사에서 "존경하는 구리문화원 회원 여러분! 문화가 발전할수록 그 나라는 부강해질 것입니다. 구리시의 문화발전을 위해 앞으로 회원 여러분의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합니다."라며 역설했고 또한 "눈길을 걸을 때 어지럽게 걷지 말 것을 당부하신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원장의 임무를 잘 수행하여 후대 원장님들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민선6기 제14대〉 박영순 구리시장 취임식

2014. 7. 1(화)
구리시체육관

구리시의 제6기 시정을 이끌어 나갈 박영순 구리시장의 취임식이 7월 1일 구리시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1994년 관선시장으로 구리시와 인연을 맺은 박영순 시장은 민선2기와 4기, 5기에 이어 6기까지 연임을 하게 되었다.

이번 취임식에는 신동화 시의장과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등 내빈과 시민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의 임원인 신계화 이사와 김보영 이사의 주축으로 축하공연을 하여 의미를 더했다.

취임사에서 박영순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 준 것은 지난 7년 동안 매진해온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마무리해서 구리시를 명품 자족 도시로 만들라는 구리시민의 의지이며 저의 숙명이다”라고 했다. 또한 “4년 후 퇴임하는 자리에서 역시 ‘일 잘한 시장’이란 칭찬을 들으며 20만 구리시민의 갈채 속에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초심으로 배진할 것이며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구리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다”며 취임사를 마쳤다.



〈제28회〉

고구려대형 온달장군 추모제향

2014. 10. 8(수)
우미내 대장간마을



구리문화원과 온달장군보존회가 주관한 제28회 고구려대형 온달장군 추모제향이 10월 8일 수요일 16시에 고구려 대장간마을 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제향에서는 박영순 구리시장이 초헌관을, 구리문화원 이병탁 수석부원장이 아헌관을, 양기태 바보온달산악회장이 종헌관을 맡았으며 집례인 구리문화원 윤승민 사무국장의 진행에 따라 전폐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방예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제향에는 손태일 온달장군 보존회장을 비롯하여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박석운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 민경자 시의원, 강광섭 시의원 등 많은 내빈과 공무원도 함께 참여하여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넋을 기렸다.

구리동구릉 문화제

구리시의 대표적 문화축제인 “2014 구리동구릉 문화제”가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10월 18일 토요일 11시에 구리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9시30분 구리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24회 구리시민백일장을 시작으로 11시에 구리광장에서 어가행렬대가 출발했고 삼보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격쟁이 진행되었다. 또한 12시에는 동구릉 재실에서 의전행사와 전통민속공연이 이어졌다.



〈2014〉 구리동구릉 문화제 개요

시 간	내 용	장 소
09:30~15:30	제24회 구리시민백일장	동구릉 원릉
11:00~12:00	어가행렬(격쟁)	구리광장 ~ 동구릉
12:00 ~ 13:00	함께하는 전통공연 ('재비' 팀과 함께)	동구릉 재실

이날 어가행렬단을 격려하기 위해 구리광장에는 박영순 구리시장, 신동화 시의회 의장, 윤호중 국회의원, 박창식 국회의원, 김문경 구리문화원장, 진화자 부의장, 박석운 시의원, 민경자 시의원, 임연옥 시의원, 강광섭 시의원, 장향숙 시의원, 안승남 도의원, 서형열 도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2014 구리동구릉 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렬단 390여명이 참여했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구리시 공무원, 구리경찰서, 구리소방서, 구리시 보건소, 교통봉사대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있었다.

『구리동구릉문화제』 왕, 세자 선발

구리문화원은 9월 22일(월) 오후 5시에 구리동구릉문화제에 참여를 신청한 왕과 세자에 대한 선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접수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지원동기, 참여의지, 체격조건 등 5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채점은 항목당 10점 만점의 배점으로 심사위원 5명이 참석하여 총 250점 만점 기준으로 선정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다고 심사위원장인 김문경 원장은 전했다.

김문경 원장은 심사평에서 “280명을 선발하는 어가행렬대에 380여 명의 시민과 학생이 지원하여 시민 여러분의 높은 호응에 놀랐다”면서 “최대한 공정한 심사로 참여하신 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아쉬움과 함께 다음 기회에도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왕과 세자는 박영순 구리시장이 수여하는 선발증서를 김기일 팀장, 이유정 주무관, 구선옥 학예사가 배석한 가운데 9월 30일 오후 4시에 시장실에서 수여받았다.



왕: 신동원(만51세)/ 구리시 토평동



세자: 신중호(9세)/ 인창초등학교 3학년



구리문화원 임원연수

2014. 9. 29
경기도 가평

구리문화원은 9월 29일(월) 오전 11시에 가평 운악스마일에서 제215차 이사회와 임원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최덕구 부원장의 '구리문화원의 날 선언문' 낭독, 김문경 원장의 인사, 전차회의록 접수, 의안심의, 기타토의, 폐회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기념촬영과 점심식사, 그리고 임원연수가 이어졌다. 의안심의로는 '제7대 구리문화원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과 '개경사 복원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원안 통과되었다. 그리고 연수에서는 박명섭 향토사연구소장의 '개경사의 역사와 보존가치'에 대한 강의와 '일상 생활에서의 예절' 이란 주제로 예절교육연구회의 이승준 회장의 강의를 이어졌다.

김문경 원장은 인사말에서 "개경사의 복원은 실로 어렵고도 장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문화원에서 꼭 추진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라며 임원진의 성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제24회 구리시민백일장



일시 10월18일(토) 9:30~15:30 | 장소 동구릉 원릉(글짓기, 그리기, 사진, 비디오) 구리문화원 대강당 (서예) | 참가대상: 관내학생, 시민
| 접수마감 10월15일(화)까지 / 당일 접수 가능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참고)
| 주관: 구리문화원 홈페이지 www.gurimh.or.kr 문의 557-6383~4 | 후원: 구리시



〈제24회〉 구리시민백일장 스케치

2014. 10. 18(토)
동구릉(원릉)

구리문화원에서는 '시민화합을 통한 축제분위기 조성! 온 가족이 참여하는 시민 문화예술창작의 활성화'를 기치로 제24회 구리시민백일장을 주최하였다.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동구릉 원릉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신청자와 현장신청자를 포함하여 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글짓기, 그림, 서예, 사진, 비디오 촬영의 5개 분야에 걸쳐 열띤 경쟁을 펼쳤다.

문화원에서 별도로 진행된 서예를 제외한 4개 분야는 동구릉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장을 중심으로 한 표현이 주된 창작 과제였다.

대회를 주관한 구리문화원 김문경 원장은 개회사에서 "조선왕조 500년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 동구릉에서 좋은 영감을 많이 받고 돌아가시길 기원합니다."라며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제19기〉

구리문화학교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 공연 : 2014.11.28(금) 15:00 / 행정복지센터 공연장
- 작품전시: 12. 5(금)까지 / 행정복지센터 2층 전시관

구리문화원 문화학교 공연발표 및 작품전시회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김문경 원장을 비롯한 내빈은 발표에서 앞서 2층 전시관에서 테이프 커팅 후 사진, 서예, 문인화 작품을 관람했고 3시 30분부터 공연장에서 수료식과 발표회를 함께 했다.

구리문화학교 제19기 수료식에서는 김문경 원장과 신동화 시의장, 진화자 부의장, 박석윤, 민경자, 장향숙, 강광섭, 임연옥 시의원이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해 주었다.



개회사에서 김문경 원장은 “특히, 이번 발표회는 ‘함께 하는 즐거움! 색다른 문화학교의 시작! 새로운 변화의 바람~ 구리문화학교!’ 라는 모토(motto)로 시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문화학교 발표회는 강좌와의 상호 교류를 통한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우리의 재능을 시민과 나눔으로써 지역문화를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며 협연의 무대를 강조했고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드림반 조수성 강사의 연주로 시작하여 12개 반의 공연을 진행했고 예다미 합창단(단장 박혜선)의 합창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구리문화학교 발표회 이모저모



〈예다미합창단〉



〈취타대〉



〈기아금반〉



〈경기민요반〉



〈대금반〉



〈모듬난타반〉



〈살풀이춤〉



〈판소리반〉



〈풍물반〉



〈색소폰반〉



〈우쿨렐레반〉



〈통기타반〉



전통성년례

2014. 9. 5.
구리고등학교 시청각실



구리문화원은 9월 5일(금) 오전 11시에 구리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2014 전통성년례”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고유례를 시작으로 문명, 시가례, 재가례, 삼가례, 성년선서, 성년선언, 초례, 수훈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성년례는 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택해 학교 측의 양해로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

여 우리 고유의 전통의식인 성년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김문경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대에 있어서도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준다는 성년례의 본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가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부각되는 현대일수록 오히려 성년례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라며 성년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제10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2014. 10. 16.~17.
경기도 의정부 실내체육관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 발전을 위한 경연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살린 제10회 대회에서 구리문화원은 구리여자중학교의 '옷다리풍물'을 선보이며 동상을 수상했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구리여자중학교 소속 풍물반 20명이 연습에 매진해 거둔 값진 결과였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연구, 개발, 보존, 선양하여 문화적 자산을 마련하고 31개 시·군의 청소년 민속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본 축제를 통해, 민속예술을 보존하는 참가자들에게는 문화적 자부심을, 그리고 관람하는 도민들에게는 경기도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대회의 의미가 있었다.

10월 16일 목요일 아침에는 강광삼 시의원이 격려차 방문했으며 이어서 펼쳐진 개막식에는 김문경 구리문화원장과 박명섭 향토사 연구소장이 함께 자리해 참가 공연 학생들을 격려했다.

예절지도강사 양성교육

2014. 11. 26.
구리문화원 소강당

구리문화원은 지난 8월 구리소식지에 아래와 같이 예절지도강사 양성교육 모집공고를 통해서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모집강좌	구분	상 세 내 용
예절지도강사	교육일시	2014. 8. 25~11. 26(월, 수 9시~12시)
	교육장소	구리문화원 제2강의실
	교육대상	구리시민
	모집인원	20명(서류 및 면접)
	수강료	전액 무료(구리시지원)

11월말까지 진행된 교육에서 선발된 인원이 모두 이수하여 구리문화원 예절교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된 교육은 이병탁 예절연구회 초대 회장, 이승준 예절연구회장, 황진영 예절연구회 고문이 강사를 맡았다.

강사명	교육기간	강 의 내 용
이병탁	9.1. ~ 10. 6.	〈공통예절〉 · 기본윤리 · 절하는법 · 예절의 방위 · 국민의례
이승준	8.25. ~ 27. 11.5. ~ 26.	〈예의문화〉 · 예절이란 · 실천방법 · 사회예절 · 공직윤리
황진영	10.8. ~ 11.3.	〈생활예절〉 · 언어예절 · 행동예절 · 가정예절 · 학교예절

찾아가는 전통예절 체험

이천 설봉서원



구리문화원에서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통한 미래의 사회가치를 높이고자 8월 28일(목)에 도립초등학교 학생 30명과 함께 설봉서원을 방문하여 예절체험교육을 함으로써 전통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천 설봉서원에서 교육받은 전통예절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인사하기: 의식인사, 큰경례, 평경례, 반경례, 목례 등
- 절하기: 남에게 공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혀하는 인사, 공경하는 정도나 상황 및 대상에 따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 통매듭 만들기: 끈을 이용하여 그 끝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맺고 죄어서 문양을 만들어 노리개나 술을 만드는 기법.
- 한복입기
 - ◆ 남자 - 갓, 망건, 탕건, 정자관, 도포, 토시, 신, 저고리, 속저고리, 조끼, 두루마기, 마고자, 바지, 버선, 대넒, 허리띠, 적삼, 등거리, 잠방이
 - ◆ 여자 - 조바위, 남바위, 장옷, 쓰개치마, 두루마기, 마고자, 배자, 저고리, 속저고리, 치마, 속치마, 버선, 속버선, 넓은 치마, 바지고쟁이



제14회 구리 코스모스 축제 현장

구리시는 전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는 구리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코스모스 축제의 주제를 '나눔과 화합을 통한 행복한 구리'로 정하고 10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하였다.



구리한강 시민공원을 찾은 구리시민과 관광객은 12만㎡의 코스모스 단지를 배경으로 계속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다. 다양하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한 가족과 친구, 연인들에게는 이번 축제가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될 것으로 생각된다.



구리문화원에서는 예절교육연구회의 다도체험과 향토사연구소의 박본체험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르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구리시니어클럽에서는 인절미와 다양한 음료들로 관광객의 발길을 멈춰 세웠다.

제9회 구리시 평생학습축제

“인생 100세, 평생학습으로 디자인하는 행복한 구리시”라는 주제로 10월 25일~26일 양일간 인창동 구리광장에서 개최된 이번 축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학교, 학습동아리, 평생학습기관 등 56개 단체가 참가했다.

구리문화원에서는 ‘우쿨렐레와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이라는 주제로 이번 축제에 참가했다. 또한, 100세 시대의 실버문화를 이끄는 구리시니어클럽은 떡볶이와 음료 등을 선보였고 투호놀이, 윷놀이 등 전통놀이 한마당을 펼쳐준 전래놀이팀, 수묵단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서예문인화반도 함께 참여했다.

구리문화원 우쿨렐레반은 조현철 강사의 지도아래 2년 차에 접어든 신생팀이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높고 회원들 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진 팀이다. 문화학교 소개는 물론, 우쿨렐레의 기본적인 연주법까지 구리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잘 설명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축제를 꾸준히 지켜본 문화원의 윤승민 사무국장은 “축제기간에 많은 홍보를 했지만 실제로 시민여러분께서 우쿨렐레를 배우시겠다고 찾아주셔서 매우 놀라웠다. 구리시가 평생학습도시이고 구리문화원이 평생학습기관인 만큼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번 축제의 소감을 밝혔다.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제9대 손태일 센터장 취임

손태일 전 구리문화원 부원장이 11월 7일 오후 4시 구리시청소년수련관에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제9대 센터장에 취임했다.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취임식에서 손 센터장은 "Guri Volunteer Vip란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구리시 봉사자 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VIP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제9대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취임

2012.11.7.(금) 16시 ◆장 소 : 구리시청소년수련관1층 강당 ◆주 관 :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손태일 9대 센터장은 중앙대학교 경상대학을 졸업하고 동일전력(주) 대표이사, 새마을운동 구리시지회 3,4,5대 회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 11기 회장, 구리시 태권도 연합회 5대 회장, 구리시 리플야구단 2대 단장, 구리시 생활체육협의회 6대 회장, (사) 한국상륙회 구리지회 8대 회장,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5대 관장 등을 역임했다.

손 센터장은 취임사에서 "겨울 첫 자락에 접어 든 요즘, 김장이나 연탄 배달이니, 자원봉사제는 그야말로 성수기를 맞아 구리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더욱 마음이 들뜨고,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로 따뜻한 온기를 채워나갈 생각에 많이 설레인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센터장은 "구리시민 전 생애 자원봉사로 행복나기를 제1 소명으로 새기고 당차게 밀고 나갈 것이며, 시민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취임사를 마쳤다.

제9대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취임식

◆일 시 : 2012.11.7.(금) 16시 ◆장 소 : 구리시청소년수련관1층 강당 ◆주 관 :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구리상록회, 청소년 무궁화 예술경연대회 개최

2014. 11. 8.
구리시청소년수련관

구리상록회는 11월 8일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제1회 청소년 무궁화 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구리시 청소년들의 감성예술을 일깨우는 흥겨운 무대에 관내 학교 청소년 22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호응을 받았다.

구리상록회는 1983년에 창설되어 5년마다 지역의 큰 인물을 선정하여 인간상록수를 추대하였고 무궁화 캠프 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한, 무의탁 노인 효도잔치, 환경캠페인, 장학생선발 및 표창수여,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의 봉사활동 지킴이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날 행사는 구리상록회가 주최하고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였고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서 후원했다. 관내 중·고등학교별로 가요, 팝송 등 자유곡의 락밴드 부문과 힙합, 팝핀, 락킹 등 댄스부문의 화려한 경연이 펼쳐져 300여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영예로운 대상을 받은 고등학교 '하트트랙 한상원 연합 락밴드' 팀에게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장의 상장과 5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구리시니어클럽 사업 활동

구리시니어클럽은 2007. 12. 24. 경기도지사로부터 위탁, 지정받아 65세 이상 건강하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알선, 창출하는 전담기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경험과 열정으로 일정부분의 수입원을 창출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리시니어클럽 사업 활동사진〉



〈떡메치기 사업단〉



〈스팀세차 사업단 (스포츠센터 작업현장)〉



〈실버카페 사업단 (실버카페 주나)〉



〈자전거대여 사업단〉



〈병과자 사업단〉



〈평생교육 사업단〉

정(情)

경춘신문 논설고문
인 영 기

예로부터 한국 사람은 정이 많은 민족이다.

마을에 길흉사(吉凶事)가 생기면 함께 모여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봄에 콩을 심을 때 한 구렁이에 콩알 세 알을 뿌리는데 한 알은 새가 먹고 한 알은 땅에 벌레가 먹으며 한 알은 자라서 사람이 먹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 사상을 기리고 살았다.

이런 정신에서 농촌에서 일할 때 결두리가 나오면 '고수레' 하고 한 손갈 먼저 땅에 고했고, 가을철 갈나무의 감 하나는 까치밥으로 남겨 두었다.

이러한 나눔과 베품의 삶의 모습에서 정이라는 감정이 묻어 나오게 된다.

그 정이란 무엇인가.

사전에는 아름답고 고운 "마음"이 정이라 했고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르 코레지오는 한국어의 정은 서양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emotion)이라고 말하면서,

미운정·고운정처럼 밋고 고운의 서로 상반되는 말이 정이라는 말 속에 용해되고 마는 것이 한국어라고 평했다. 사실 정이라는 말 속에는 서로 상충하는 말과 감정이 서로 어울려 함께 담긴다.

정이 많고 없다는 다정(多情)과 무정(無情), 따뜻하고 차갑다는 온정(溫情)과 냉정(冷情)이 다 정이라는 말 속에 녹아내리고 기쁨도 눈물이 나고 슬퍼도 눈물이니 기쁨도 슬픔도 눈물이 정이었다.

이렇게 밋고 곱고, 차갑고 따뜻하고, 슬프고 기쁜 감정이 청 속에 담겨 있으니 정에 울고 정에 웃었다.

정처럼 아름답고 고운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정처럼 마음을 애타고 아프게 하는 것도 없다.

가려거든 아주 기약지 왜 정은 남겨 날 잡고 놓지 않는가.

정이 뉘길래 이토록 마음을 애타게 하니 정이 무서워 어찌 정을 주겠는가.

한 잔 술에 취해 옷소매를 잡아끄는 취객에게 소맷자락 찢어지는 건 아깝지 않으나 정이 끊어질까 두렵다는 매창(梅窓)의 시에서는 소박한 인간의 정이 흐른다.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望夫石)이 된 박제상의 아내에겐
애절한 부부의 정(愛情)이 서리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덮었다가
님 오시는 날 밤이어든 굽어굽이 퍼리라는
황진이(黃眞伊)의 시에서는 연모(戀慕)의 정이 넘친다.

자식교육을 체험의 교훈으로 보여준 한석봉 어머니의 떡 썰기는 모정(母情)의 극치요,

매일 밤 기방(妓房)에 출입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아들 비릇을 고쳐주려 밤마다 정장을 하고 대문 앞에서,
'손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아들을 맞은 황희(黃喜)정승은 부드러움 속에 엄한 부정(父情)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과 벗하며 정을 나누는 선인들의 뒷모습도 아름답다.

봄비 내리는 소리에 춘정(春情)을 느껴 지필묵(紙筆墨)에 정을 담고,

때곳에 달빛이 하얗게 부서지는 삼경,
가지에 물 오른 봄의 향취를 작구야 알리 없지만
다정도 병이 되어 잠 못 이루는 이조년(李朝年)의 다정가(多情歌)는 애절한 봄의 서정(抒情)을 노래하고 있다.

화사한 장미꽃의 아름다움보다 추위도 향을 떨지 않는 매화의 향기와 대나무의 절조(節操)에 심취한 감정을
정 속에 품은 옛 선비들에게선 낭만과 멋이 풍긴다.

화려한 외양보다 은은한 내면의 향기에 정을 찾은 고고(高孤)한 선비정신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처럼 부드럽게 가슴에 와 흐르는 아름다운 발을 또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새삼 흘러간 시절의 정을 논해 본 것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갇혀 자연을 잃어버린 채 생명이 없는 차가운
무쇠폰에 혼을 파는 세태에 정이 그리워 정을 그려본 것이다.

아차산 발굴의 숨은 공로자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박 명 섭

문화재 불모지에서 ‘고구려 요새’ 찾아내

글 : 강민철

사진 : 김응주, 강민철



“그때가 1991년 5월 8일...”

박명섭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70)은 2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이 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박 소장이 구리문화원에 첫 발을 들여놓은 날이자 문화원 설립을 준비하던 날이기 때문이다.

“이틀 뒤에 열릴 발기인 총회를 앞두고 현지 조사차 문화원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사무실도 없고 지도 없고...(웃음) 그걸 때였어요”

여하간 구리문화원은 다음 날인 6월 29일 창립총회가 개최되면서 문을 열었다.

박 소장에게는 초대 사무국장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앞 어찌에 올려졌다.

박 소장은 구리문화원 초대 사무국장으로 10년 동안 일했다. 그 후 현재까지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그 동안 박 소장은 허허벌판이나 전 없었던 구리문화원에서 '4대 성과'를 남긴다.

먹골배 옛 명성 살려 지역 미인대회로 연결

첫 번째 성과가 '먹골배 아가씨' 선별대회다. “본래 구리에는 먹골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곳에 배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품종이 좋을 수 없었어요. 예로부터 상감님한테 진상하던 배였는데 도시화되면서 배나무는 다 없어지고 이름만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구리문화원이 생기면서 (브랜드를) 등록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한테 미인대회에 출전하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어 문화원 설립하고 맨 처음으로 한 게 '먹골배 아가씨' 선별대회였어요. 미인대회를 통해 진선미가 흠치면 농협에 취업도 시켜주곤 했지요”

하지만 대회는 5년 정도 열리다가 박을 내렸다. “대회는 우리가 하고, 장사는 남양주가 했어요”. 1963년에 '먹골'이 서울로 편입된데다가 도시화가 계속되면서 구리에 있던 배나무밭들이 없어지거나 남양주 쪽으로 재배지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아차산 지표조사·발굴조사 견인차 역할

다음은 아차산 발굴사업이다. 이는 박 소장의 '성과'이기보다 '업적'이라 할 만하다.

문화재 발굴사업은 당시 문화원이 별이기에겐 전문





인력이 부족한데다 예산마저 턱없이 모자라 엄두도 못 냈던 상황이었다. “〈구리시지〉 편찬 작업을 맡아서 하던 이달호 상임위원(전 수원화성박물관장)이 구리에는 동구릉을 제외하고는 도대체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서 시지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조사를 해보자고 제의하더군요.” 이 얘기를 듣고 박 소장은 시청 담당과장을 찾아가 소요 예산을 좀 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뼉뼉에 헤딩하는 거나 다름 없었다.

박 소장 : 예산 좀 부탁하네.

담당 과장 : 뭐할 건데요.

박 소장 : 산과 동네에 뭐가 있는지 역사 자료를 찾는 거야.

박 소장은 구리라는 문화의 불모지에 묘목을 심는 생각으로 향토사 연구에 달려들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어렵사리 예산 2천만 원을 확보해 지표조사에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조사단이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한 달 동안 돌아다녔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을 트롤로 흙을 푹푹 떼어내다 보니까 토기 파편이 계속 나왔다는 말이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곳이 바로 아차산 4보루다. 보루(堡壘)는 둘레가 산성보다 작은 요새를 말한다.

1994년 3월부터 6월까지 지표조사를 벌인 결과 이곳에 엄청난 고구려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이 밝혀졌다. 고구려 유물유적 조사발굴작업에는 심광주(토지주택박물관장)선생이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아차산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발굴조사에 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997년 9월 22일부터 45일 간의 일정으로 착수한 발굴조사는 완료 예정일을 20여 일 넘긴 11월 30일에야 끝낼 수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고구려 유물들이 출토됐는데 요즘말로 ‘대박’이었다. 온돌유구와 방혈수혈유구(소형연못)가 10여 개 발굴된 것을 비롯 장동호류, 시루류, 뚜껑류, 접시류 등 고구려 중기의 대표적인 토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대와 비슷한 구절판이 나오기도 했다. 완형으로 출토된 토기 10여 점을 포함해 수백 점의 복원 가능한 토기가 출토됐다.

그런가 하면 토기접시의 안쪽 바닥에 ‘後部都(후부도)’, ‘支都(지도)’, ‘苒牟(염모)’ 등의 글자가 새겨진 명문토기들도 출토됐다. 이밖에도 청, 낮, 굽, 호미 등 농기구를 비롯해 화살촉, 창고달이, 갈고리창 등의 무기류가 나왔다.

“유물이 많이 나오니까 최종택 고려대 교수는 감자밭에서 감자 캐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때를 회상하는 박 소장의 눈이 반짝거렸다. 박 소장은 이 유물들을 김용주 사진작가에게 부탁해 사진으로 생생하게 기록했다.



10억 기금 조성 '문화원 자립 토대' 마련

셋째는 구리문화원 10억 기금 조성이다. 박 소장의 문화원에 대한 공헌 중에 10억 기금조성은 빼놓을 수 없다. "10억 기금조성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구리문화원에만 있는 이야기인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니 지자체는 지방문화원을 도와주라는 조항이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싶어 당시 관선시장을 설득했는데 인기 말이라 차기 민선시장이 오면서 의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어요" 박 소장은 구리시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역문화가 발전하려면 문화원 기금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다 지치면 "이 조례 안을 반대해 통과 안 되면 다시는 시의원 못할 줄 알아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막판 투표일에는 문화원 이사 50여 명을 의회에 나와 좌악 맞아있게 함으로써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문화원 기금 조성 안전에 대해) 반대할 의원이 없지요. (웃음)"

이로써 구리문화원은 1년에 2억씩 5년 동안 10억을 조성하며 다른 전국의 문화원들에게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다른 문화원들에게도 문화원 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문화원에 돈이 있는 문화원장이 오시면 좋죠, 돈이 없으신 문화원장이 오시면 어려워요.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만 문화원장을 하는 게 아

니라 돈이 없는 사람도 문화원장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문화원 기금 조성이 필요합니다."

석탑 복원 '도 유형문화재 제205호'로 지정받아 마지막으로서는 3층 석탑 복원사업이다. 구리시 아천동 산54 임야에 있는 이 탑은 모양과 제작수법으로 볼 때 고려 전기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성행한 백제계 석탑이다.

어느 날 초등학교 선배의 지인 한 사람이 찾아왔다. 어릴 적 아무것도 모른 채 토래들과 탑을 허물어뜨린 일이 있는데 그 후로 평생 되는 일이 없더라. 애기인 즉, 6·25때 배가 고파 너니 할 짓 없이 아이들이 산으로 들로 다녔는데 3층 석탑을 온달탑인 줄 여기고 이걸 무너뜨리면 뿜가 나올 줄 알았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박 소장은 문화재 관리국에 복원을 요청했다. 그러면 차에 정영호 박사를 만나게 됐다. 우연하게도 정영호 박사와 초대 김종국 원장이 알고 보니 고교 동기 동창으로 같이 럭비선수를 한 사이였다. 이런 인연이 더해져 복원 사업을 원만히 착수할 수 있었다. 그런데 깨어진 옥개석은 접착제로 붙여 사용하면 되는데 다른 탑 돌 하나가 없어 새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최 사장이라는 6·25 참전용사가 복원 현장 가까이에서 천박을 치고 휴식을 즐기고 있었는데 고민하는 우리들의 얘기를 듣고 "넌적넌적하게 생긴 돌

이 우리한테도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가서 보니 지금껏 찾지 못했던 바로 그 탑 돌이었다. 이렇게 해서 원래 돌로 탑을 복원할 수 있었다. “나중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205호로 지정받았어요. 탑 복원 후 동네사람들이 와서 잘하고, 어린 것들이 몰라서 그랬다며 용서를 빌었죠. 나중에 그 형님 만나 물어봤는데 마음에 부담이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향토사 연구위원들에게 숙제 내주는 '열정남'

이밖에 박 소장은 중요무형문화재 42호인 악기장 율덕진 선생의 복도 예산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들씩 만들어 수년에 걸쳐 26종을 완성해 문화원이 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가하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는 회다지소리의 녹취를 이미 완료해 둔 상태다.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비는 도당굿 역시 바깥 달라붙어 조사한 끝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15호로 지정받았다.

박소장은 현재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으로 향토사위원들에게 쉽지 않은 '숙제'를 부여한다. '망우산의 근현대사 인물들을 조사하라', '사라지는 동네 갈매동을 조사하라', '지난 56년도에 들어온 병원의 어제와 오늘을 조사하라'

호랑이 향토사 연구소장이 따로 없다.

〈박명섭은 누구?〉

- 구리문화원 초대 사무국장

- 20여 년간 향토사 연구에 매진

1939년생으로 26세에 농협을 거쳐 원진레이온에서 일했다. 1966년 입사해 1974년까지 9년 동안 일하다 뇌경색과 고혈압 등 직업병에 걸리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뒀다. 이후 구리문화원 창립에 동참해 1991~1999년 10년 동안 구리문화원 사무국장으로, 1999~2002년 3년 동안 총무이사로 봉직했다. 이후 구리문화원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사료 조사위원을 3번 역임했으며 경북지사로부터 지마왕릉 참봉에 임명되고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보호유골, 1999~2000년 아차산 시루봉 고구려 유적 발굴의 숨은 공로자다. 현재는 그의 표현을 빌자면 향토사 연구소장으로 눌러앉아 있다. 지금까지 11년 동안 틈틈이 동구릉에서 문화해설사로 봉사하고 있다.

한편 밀성박씨 총헌공파 후손으로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미음리를 중심으로 세거하고 있는 미음 종친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윤증선생을 만나자

(2014.10.24. 구리문화원 논산답서를 다녀와서)

향토사연구회

김 지 희

“OO아 내일 논산가자”
“논산을 왜 가요? 군대 가면 당연히 갈 텐데...”
“훈련소 말고 여행가자”
“생각해 볼게요~”

올해로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단기방학이라 집에 혼자 있게 하기는 그렇고 이번 답서는 연초부터 논산여행에 참석할 것이라고 부원장님과 약속을 했기에 아들을 두고서라도 집을 나서야 할 상황이었다. 이렇게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던 아들이 자기도 못이기는 척 따라 나섰다. 나는 내심 참고 아왔다.

‘별걸 다 고마워해야 하나?’

라고 말을 하겠지만 미리도 다 저서 자신의 주장이 뚜렷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나이고, 이들의 입장에서선 또래도 없고 함께한 일행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며 본인이 좋아해서 계획하거나 추진한 일이 아닌 이상, 요즘 아이들은 웬만한해선 부모를 따라가질 않으려 한다.

맨 뒷자리의 좌석을 배정받은 아들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듣기 삼매경이다. 나는 일부러 앞에서 둘째 줄에 앉았다. 마침 내가 잘 아는 선생님이 먼저 앉아 제쳐서 우린 합석을 했다. 마음은 아들과 함께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했으면 했지만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행색이

‘나를 건들이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나 또한 편안하고 조금이라도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아들도 바깥가지로 오는 하루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있을 것 같기도 했다.

평일이라 그런지 논산에 일찍 도착했다.

내가 알고 있던 논산은 2년 전쯤 권족사와 계백장군 유적지, 개태사, 견훤왕릉을 다녀 온 적이 있었기에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이번엔 빈 마음을 갖고 합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답사는 그야말로 환상 속의 그대였다고나 할까? 오늘 나를 때로시킨 사람은 바로 명재고택에서 윤증선생을 만났기 때문이다.



먼저 명재 윤증(尹拯, 1629~1714)의 인물을 살펴 봐야 했다.

윤증은 고려 때부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북9성을 개척한 과평 윤씨며 명문가문인 윤관(尹瑗) 장군과 그의 아들 윤언이의 후손이며 윤증의 조부인 윤황(尹煥)은 대사간을 지내고 문정(文正)이라는 시호를 받은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 중요한

첫은 율곡 이이와 함께 문묘에 배향되었고 조선 중기의 대표적 학자로 추앙받은 우계(牛溪) 성혼(成渾, 1535~1598)의 사위였다. 또한 윤증의 부친인 윤선거는 성혼의 외손으로 서인의 대표적 계보를 이었고, 당대에 강하게 북벌론을 주장한 남인의 대표인 윤류와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과 교류했으며 그의 아들 윤증의 스승으로는 송준길이나 송시열, 김집 등 학문과 정치에서 당대 시대를 주름잡던 명사들의 제자였다.

윤증은 조선후기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부친인 윤선거 배부터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는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윤선거와 윤증은 같은 성리학을 공부했지만 주자의 성리학만이 최고의 학문이라 여긴 송시열과는 다르게 양명학과 예학도 깊게 공부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것이라면 그대로 적용시켜 실천한 유연하고도 온건한 사람이었다.

마치 광해군의 증립외교가 떠오른다. 위기에 처한 나라의 현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재조지은의 명분만 주장했던 서인들의 대책 없는 모습으로 오히려 인조반정을 만들어 병자호란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만들었지 않았는가?

소론의 영수인 윤증은 입적이 과거와 벼슬을 포기했지만, 이미 20대 후반 무렵 상당한 명망을 얻었다. 그는 1658년(효종 9)에 학문과 행실이 뛰어난 선비를 천거하라는 왕명으로 세자익위사(世子翼衛司)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천거되었다. [명재연보]에 따르면 "이때부터 윤증의 명망과 실덕(實德)이 점차 높아졌다." 그 뒤 윤증의 인생은 징소(徵召; 벼슬을 권유하면서 부름)와 사직의 과정이었다고 말할 만하다. 그는 85세의 노령으로 별세할 때까지 공조좌랑·사헌부 지평·세자시강

원 진선·사헌부 장령·집의·호조참의·대사헌·찬선·이조참판·우참찬·이조판서·좌참찬·좌안성·우의정 등 수많은 관직에 18번이나 제수되었지만, 단 한 번도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끝에는 우의정을 제수하고 대신들이 5번이나 모시러 왔어도 14번의 상소를 올리고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보통 '백의정승'이라 일컫는다. 백의정승이란 비록 관복을 입지 않았지만 정승에까지 올랐던 분이라는 뜻이다. 조선 500년 동안에 임금님을 직접 뵈지 않고 정승까지 올랐던 분은 명재 윤증선생이 유일하다고 한다.

학문의 경지에 올랐어도 선을 베푸는 선비의 고결한 인품이 있었기에 명제고택은 동학과 6·25 전쟁이 발발했어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또 그는 지나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 후손들에게 양장을 금지했다. 이런 태도는 고결한 선비정신의 실천으로 높이 평가된다. 그의 종택(충남 논산시 노성면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90호)은 지금도 잘 보존되어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되어 오늘은 내가 찾아오고 다음은 우리들 후손들이 찾아오는 고향 같은 푸근한 곳이며 윤증의 정신과 함께 기억되어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논산에 도착하자마자 윤증선생이 고택에서 나와 우리를 맞이하는 것 같았다.

답이 없는 명제고택은 조선시대 중기 호서지방의 양반가옥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고백으로 300여 년 전에 지어졌지만 그 때 이미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건축물로 명제고택은 필요한 곳만 지었다고 한다. 뒷산은 비보의 역할을 하는 소나무가 가득하고 혈자리인 우물이 있으며 그 우물을 가리기 위해 향나무로 에둘러서 미관상으로도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배치한 그 넉넉한 안목이 감탄을 자아낸다. 더불어 이 향나무는 불을 정화시킨

다고 하니 그 습기로부터 과학적 공감각은 귀찮아 된다. 뿐만 아니라 책원과 정원 그리고 후원 속에 고즈넉한 장독대는 실용성과 경관으로 비교적 잘 처리한 조경의 사례로 용양의 조화를 맞추고 원근법을 이용한 과학적인 구조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또한 후손들의 청갈한 마음씨도 느낄 수 있었던 단아한 고택이라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병재선생은 이곳에서 기거하지 않으시고 그 옆의 작은 초가삼간에서 주거하시며 병이 위독해지자 자손 및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엄히 당부하기를

“상을 치를 때 중국(청)의 물품을 사용하지 말고, 묘표(墓表)에는 관직이나 재호(齎號)·‘선생’이라는 표현 대신 선비라고만 쓰라”고 당부했다. 평생 동안 정소(徵召)의 은혜를 입은 것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윤증은 1714년(숙종 40) 1월 24일에 85세의 긴 삶을 마쳤다.

아들은 명재고택을 둘러보며 사진도 연실 찍어 대며 해설사의 설명에 귀 기울인다. 용기종기 모여 있는 장독대와 대조적으로 어느새 노란 은행나무만큼 자라 키가 훌쩍 큰 아들의 늙름한 모습이 내 카메라 앵글에 잡혔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윤증선생의 큰아버지 윤순거가 세운 교육시설인 종학당(宗學堂, 충남 논산시 노성면 소재, 시도유형문화재 152호)은 파평윤씨 자제들과 인척 자여질(子與姪)들을 가르치던 종학당 출신자로 문과 급제자가 무려 46명이나 나온 곳으로 유명하다. 전국에 많은 문중 서당이 있었지만 종학당처럼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곳은 없고 더구나 오늘날까지 시설이 보존되고 있는 곳은 종학당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 일행이 이곳에 온 이유는 해설사님의 강력 추천이었는데

네 잠발 못 보고 돌아갔으면 후회할 만큼 병재고택과 종학당은 넓은 들만에 익은 곡식과 함께 내 마음을 힐링해준 곳이다.



언젠가 파주의 윤관장군묘에 갔을 때 그 위엄과 규모에 놀랐지만 파평윤씨 후손들이 파주에서 유지라 건드리지 못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도 그렇구나라고만 듣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곳 종학당을 와보니 정말 대단한 종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구(舊)소련 대동명인 비하일 고르바초프의 기념식수도 있었다.

정수루에 오르자 우리 일행을 아흔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주 선생님께서 단체 사진을 멋지게 찍어 주셨다. 정수루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경관은 설명이 필요 없다. 그 자체가 그림이 되어 저절로 입속에서는 시를 읊고 추임새와 장단이 여기 처기서 흘러나온다. 또한 작은 발립의 동작들이 어깨를 들쭉들쭉하게 한다.

정수루는 종학당 앞에 위치하며 정면 중앙에는 현관 ‘淨水樓’가, 오른쪽과 왼쪽에는 ‘향원의창(香遠益淸)’, ‘오가백록(吾家白鹿)’이 각각 걸려 있다. 종학당과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하며 서재 마루와 누각이 연결되어 있어 학문을 토론하고 시문을 짓던 장소로 이용한 것이다. 장

수루 남쪽에 강당이 있는데, 파평 윤씨 자녀들이 해마다 여름에 예절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한다. 시간관계상 바로 이동을 해야 해서 찬찬히 둘러보는 못했지만 계절이 바뀌더라도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곳이다. 봄, 여름과 겨울은 어떤 만남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곳이다.



고종 8년
1871년 대
원군의 서
원 해철령
때도 훼손

되지 않고 보존된 유서 깊은 돈암서원(遼巖書院)은 원래 있던 숲말이 지대가 낮아 장마 때면 서원 마당까지 물이 차오르는 일이 있어 1881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 온 이곳은 사계 김장생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위패가 태향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 예학의 산실이다.

사실 우리나라 서원 9개를 세계문화유산장정목록에 등재하여 2016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어서 그런지 오늘의 돈암서원은 행사 준비와 공사로 분주해 (다음 주에 백일장이 열린다고 함) 매우 어수선했다. 그래도 내 눈길을 끄는 것은 강당의 역할을 했던 응도당(凝道堂)이다.

돈암서원에서 가장 빼어난 건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고 다른 서원 건축양식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맞배지붕으로 양 옆면에 하나를 덧댄 가침지붕(눈썹치마)구조의 지붕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대들보는 크고 웅장하며, 생동감 있는 비늘 무늬는 살아있는 용이 꿈틀대는 듯 익공의 화려함과 화반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건물로 창방 위에 놓인 화반형 조각은 기둥 사이마다 1개씩 있었다. 단청을 안 했어도 그 웅장함과 규모의 화려함은

우리를 압도해 보는 이들에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건물이며 서원에 서는 보기 드문 구조를 하고 있어 국가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개태사(開泰寺)는 바닷가지로 입구부터 공사 중이다. 936년 왕건이 후백제 신검의 군사들과 싸워 승리해 후삼국을 통일했다는 기념으로 세운 고려 시대의 호국불교사찰이다. 그래서 그런지 사찰 안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마치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처럼...

현재는 고려 초기 웅장했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대웅전과 칠법당을 짓는 등 불사(佛事)를 계속하고 있



다. 그러나 정확한 고증이 필요한데 왕건의 초상화를 모신 어진전은 매우 화려한 왕건의 초상화로 금빛 찬란한 용포를 입으셨지만 부채를 들고 체신 외세기화한 어진을 그려 넣은 것이 나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어디에 나오는 왕건 초상화로 그랬나요?” 라고 내가 물으니 설명하신 스님은 기록에 있다고만 말씀하시고 본인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됐다고 하신다. 예술은 이미지의 변형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곳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예술과 역사는 다르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 혼자 되새기며 내 발걸음도 어수선히게 개태사 경내를 돌아보았다.



차에 올라타고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인영기 의원님의 박학하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개태사에서 받은 황량함을 눈 녹듯이 녹여 주었다.

동양의 시성들에서부터 화담과 황진이, 지족선사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셔서 박수로 환영하며 즐겨워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비꽃이라고 알려진 괴테의 “얇은땀이 꽃의 노래”를 읊어 주셨는데 매우 감동적이었다. 어느 날, 들에 핀 한 떨기의 조그만 얇은땀이꽃이 양의 젖을 짜는 순진무구한 시골 처녀의 발에 짓밟혀서 사들어 버리고 만다. 그러나 얇은땀이꽃은 조금도 그것을 서러워하지 않는다. 추잡하고 못된 사내의 손에 무참히 꺾이지 않고 맑고 깨끗한 처녀에게 밟혔기 때문에 꽃으로 태어났던 보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행복의 의미를 다시 새키며 잠시나마 나의 10대,

20대는 어땠는지 과거로의 추억여행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새근거리며 잠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고단한 모습을 보니 아들에게도 보람 있던 날이었던 것 같았다. 아무 말 없이 잘 따라와 줘 고맙다.

윤중 선생이 학문을 대했던 자세와 인품, 그 명재고택이 유지될 수 있었던 후손들의 노력, 종학당 정수루에서 본 넓은 들판과 풍경, 논산의 높고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네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지칠 때 오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빠와 동생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엄마와 함께한 이 소소한 여행이 내 아들에게 추억의 한 조각이 되어서 나중에 진짜 논산 훈련소에 올 때 즐거운 기억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반영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190개국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981곳의 유산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문화유산이 759곳, 자연유산이 183곳, 복합 유산(문화 및 자연유산)이 29곳입니다.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

아리랑이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1년 등재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15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2009년 8월 '아리랑' 중 유일하게 지방급 문화재로 지정된 정선아리랑(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조선족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논란이 됐고, 이에 정부는 특정지역 아리랑이 아닌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노래를 모두 포함해 등재를 재신청해 이번 결과를 얻었다.

이번 등재에 따라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5년간 336억 원을 투입해 아리랑 아카이브 구축 및 상설 및 기획전시, 학술 조사 및 연구 지원 등을 포함한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려인·조선족 등 해외이주민, 해외 입양가정 등을 대상으

로 '아리랑'을 테마로 한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민족 아리랑 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우선적으로 '무형문화유산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아리랑을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국의 아리랑 전승단체를 우선 조사해 '국가무형유산 전승공동체'로 인정하고 이외에 지역별 보호가치가 있는 전승자 발굴도 장려해 시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남한산성, 인류의 유산이 되다.

건국대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 교수

최재현

한낮의 열기가 50도를 웃도는 아라비아의 사막국가 카타르는 인구 200만 명의 1인당 국민소득이 12만 불을 넘는 부국이다. 카타르국립컨벤션 센터에서 6월 16일부터 열흘 동안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다. 올해에는 41개가 상정돼 남한산성을 포함한 12개 유산만이 평가위원회의 종합 검토 등 그 어려운 심사과정을 통과해 등재권고를 받은 것이다.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듯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21개 위원국의 일원으로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남한산성의 세계 유산적 가치를 7~19세기에 이르는 국내 축성술의 발달 단계와 무기체계의 변화상을 잘 드러내는 동시에, 16~18세기 동안 전란을 거치며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일본 간 산성 건축술이 상호 교류한 중요한 증거로 파악 인정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이 전란을 대비하여 험난한 자연지세를 이용해 축성한 포곡식 초대형 산성으로서, 전란을 대비한 조선의 임시 수도인 산성도시라는 점이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이다. 무엇보다도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는 바로 이 땅을 지켜온 선조들의 열과 슬기, 그리고 말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대한 세계인의 인정과 찬사가 아닐까.

세계유산 남한산성을 보존하고 가꾸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꾸고 지키는 일이다. 첫째,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해서는 무원칙적이고 원형을 무시한 '파괴적 복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세계유산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융합적이고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세계적인 인재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폭 넓은 시각에서 많은 제도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 등 다른 나라를 보면 오랜 기간 세계유산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을 두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화유산의 시대에 세계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 문화와 교육을 통한 세대 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떡국

새해 첫날에 먹는 대표음식의 하나인 떡국, 천지 만물의 부활신생과 부귀영화를 기원하며 일 년의 나쁜 액을 모두 막아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 설날에 떡국을 먹는 풍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에 편찬된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등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문헌에 새해 차례와 세찬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요즘은 정월뿐만 아니라 일 년 내내 대중적인 일품음식으로도 인기가 높다.

지금은 대부분 방앗간에서 기계로 가래떡을 뽑아내지만, 기계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마당에 안반을 두고 남자들이 떡메로 떡을 쳐서 가래떡을 만들었다. 가래떡이 식어서 굳으면 어슷하게 썰어 떡국에 들어갈 떡을 만든다. 충청도에서는 '생떡국'이라 하여 익 반죽한 쌀가루를 도토리 크기로 둥글게 빚어서 떡국을 만들었다. 개성 지방의 떡국 떡은 누에고치처럼 가운데 부분이 잘룩한 것으로 조랭이떡이라고 한다.



떡국을 끓이는 방법은 지역마다 집집마다 약간씩 다르다. 떡국의 국물은 주로 쇠고기나 꿩고기로 맑은 장국을 끓인다. 고기는 건져서 얇게 썰거나 가늘게 찢어서 양념해 놓는다. 흰떡은 한 톨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 놓는다. 계란은 황백을 구분하여 각각 얇게 부쳐서 골때모양으로 썰어둔다. 상에 놓기 바로 전에 펄펄 끓는 국에다 썰어 놓은 떡을 넣고 떡이 떠오르기까지 끓인다. 국물에 떡이 떠오르면 합(盥)이나 대접에 퍼서 담고 양념해 놓은 고기와 황백 지단을 곁들여 얹는다.

새해 아침 떡국으로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린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어른들은 덕담과 함께 떡국을 먹음으로써 한 살 더 먹는다고 말씀하신다. 훈훈한 정이 흐르는 우리네 모습이다.

방패연

겨울철 바람을 이용하여 연을 하늘에 띄우는 연날리기. 한국의 연의 종류는 형태와 문양에 따라 100여 종에 이르고, 용어도 지연(紙鳶)·풍연(風鳶)·방연(放鳶)·풍금(風禽) 등이 있는데 '지연'이 가장 널리 쓰였다.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 중 하나인 연날리기는 원래 삼국시대 김유신 장군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주로 정월 초하루부터 연을 날리기 시작해 정월 대보름까지 연날리기를 하고, 정월 대보름에는 연을 날리다 연줄을 끊어 연을 날려 보냄으로써 그 해의 액막이를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연이라고 할 수 있는 방패연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것으로 사각 장방형의 중앙에 방구멍을 뚫어 맞바람의 저항을 줄이고 뒷면의 진공상태를 즉시 채워주기 때문에 연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을 받아도 잘 빠지게 되어 있어 웬만큼 강한 바람에도 연이 상하지 않는다.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이 군사 작전용으로 전술신호를 위한 암호 전달에 중요한 수단으로 띄운 연도 방패연이었다.

방패연은 연싸움을 하기에 가장 유리하다. 연줄에 유리 가루나 사금파리를 섞은 아교풀을 묻혀 알레로 줄을 풀고 감아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공중에서 종횡무진 활약할 수 있다.

연날리기는 1992년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있다.



꽃문살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보물 제291호)의 문살에 새겨진 꽃문살.



누구나 한번쯤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게 된다. 꽃문살의 단청은 세월의 흔적인 듯 희미하지만 속살을 드러낸 나무빛깔, 나뭇결은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나라 사찰 문살 문양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꽃문양이 많다는 것이다.

문살 하나하나도 예사롭게 만들지 않고 온갖 정성을 들어 모란, 국화, 연꽃 무늬로 아름답게 꾸몄다. 모란꽃 문양은 부귀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고, 석류나 포도 문양은 다산과 풍요의 의미를 담고 있다.

국화 문양은 정결한 마음과 높은 절개를, 연꽃 문양은 군자의 청빈과 고고함을 의미한다. 직선형의 문살, 꽃잎과 기하학적 무늬가 조합된 문살, 원이나 마름모꼴 문양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문살에는 목공의 섬세한 손끝으로 전해지는 지극한 불심과 연속적으로 이어진 문살에는 목공의 섬세한 손끝으로 전해지는 지극한 불심과 예술혼이 깃들어 있다.

문살은 우리나라 목조건축 창호의 살 짜임새를 나타내는 장식무늬로 한지 너머로 창호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것은 문살 때문이 아닐까 싶다. 문살은 대표적으로 문틀 상하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좌우로는 상중하 세단으로 나뉘어 띠살을 두른 '띠살', '亞(아)'자를 닮으면 '아자살', '井(만)'자를 닮으면 '원자살', '井(정)'자를 닮았으면 '정자살'이라 하고, 문살을 45도와 135도로 교차시켜서 짠 빗살·소슬빗살 위에 꽃문양을 새겨 장식한 것이다.

휴가나 여행을 통해 고택이나 궁궐, 사찰을 방문하게 된다면 한번쯤 문살을 눈여겨보자. 의외의 장소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흑두루미

흑두루미는 시베리아, 중국, 일본, 한국 등지에서 분포하는 겨울 철새로 몸 전체가 흰색을 띠는 두루미와 달리 검은색을 띠고 있어 흑두루미라고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000마리 정도만 남아 있는 천연기념물 제228호(1970년 10월 30일 지정)이자 멸종위기등급 2급(2012년 5월 31일 지정)의 귀한 새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남 순천만에서 약 100마리 - 120마리, 충남 천수만에서 약 50-60마리 정도가 겨울을 난다.



흑두루미는 주로 논밭이나 얕은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복족류, 곤충류 등 동물성과 벼, 보리와 같은 낱알, 식물의 뿌리 등을 먹으며 보통 3-4마리 정도의 가족이 모여 큰 무리로 생활한다. 암수 구분 없이 몸 길이 76cm 정도로 대형조류이지만, 다른 두루미에 비해서는 키가 작은 편이다. 몸 전체가 검은색을 띠고 머리는 흰색이며 머리 꼭대기에 붉은색 반점이 있다. 어린 새는 어미에 비해 색이 더 검고, 머리는 갈색을 띠며 머리 꼭대기에 회백색의 깃털이 있다.

흑두루미는 시베리아와 우수리강, 아무르강에서 번식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 월동한다.

한국전쟁 이전에만 해도 전국에 걸쳐 관찰되는 비교적 보기 쉬운 새였으나, 지금은 월동 상황에 대한 뚜렷한 조사결과가 거의 없을 정도로 희귀하며, 일본에서는 1,000마리 정도가 규칙적으로 월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멋진 이탈리아를 소개합니다

에디터 박은경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또 민사법은 어떻게 다른지 자꾸만 헷갈린다. 게다가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도 감이 잘 안 잡힌다. 자칫 선택은 마음으로 떠난 해외여행이 악몽으로 남을까 걱정.

이런 당신을 위해 이른바 나라밖 여행의 기술이다.



<전 세계인의 바캉리스트 여행지>

이탈리아는 남북으로 가늘고 길게 벌은 모습이 마치 강화를 연상케 한다. 고대의 문화유적이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목한 번 가보고 싶은 나라로 첫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묘한 매력을 가진 이탈리아.

과거의 화려한 전통과 유물만큼 고집하지 않고, 첨단 패션과 유행을 잘 융합시켜 수많은 명품을 생산하고 있다.

<스피케티와 피자의 나라>

이탈리아는 20개 주가 모두 특색 있는 요리와 와인을 지니고 있다.

남부는 파스타와 올리브유를 주로 한 요리가 발달했고, 북부는 프랑스 요리의 영향을 받아 버터, 생크림 등을 많이 사용하며 옥수수와 쌀을 주식으로 한 요리가 발달했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탈리아 음식이란 바로 남부의 음식을 뜻한다.

<전통과 역사의 도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 유독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은 로마의 전통과 역사가 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탈리아 상징 로마에는 고대 유적이 거리 곳곳에 즐비하고 수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로마는 한마디로 도시 전체가 관광명소라고 말할 수 있다.

제 49차 문화유적답사

회차	답사일	장소	회비		답사코스	신청일
			회 원	비회원		
49	2015. 4. 16(금)	강원 영월	회 원	20,000원	청령포-장릉- 보덕사-김삿갓계곡	4.2
			비회원	30,000원		

*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청령포

영월군 남면 광천리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단종의 유배지로 청령포는 동, 남, 북 삼면이 물로 둘러싸이고 서쪽으로는 육육봉이라 불리는 험준한 암벽이 솟아 있어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밖으로 출입할 수 없는 마치 섬과도 같은 곳이다.



■ 장릉(단종)

조선 제6대 왕인 단종의 능으로, 17세 되던 해에 죽음을 당하여, 그 주검이 강물에 띄워졌으나, 호장 엄흥도가 이곳에 암장하였다. 1541년(중종36) 당시 영월군수 박충원이 묘를 찾아내어 묘역을 정비하였다.



■ 보덕사, 김삿갓계곡

보덕사는 단종대왕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이곳 영월로 유배되었던 곳으로 단종의 혼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단종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

김삿갓계곡은 삼천리 방방곡곡을 누비며 못난 양반을 조롱하고 서민의 애환을 노래한 조선시대 최고의 풍류가객 김삿갓의 묘가 위치하여 유명해진 계곡이다



2014 하반기 주요 행사

〈구리문화원〉

일 시	장 소	행 사 명	비 고
7월 10일(목) 10:00	경기문화재단	경기지역학 협의체 구성	- 2014년 경기지역학 협의체 구성 논의 - 사무국장 참석
8월 25일(월) 10:00	구리문화원 대강의실	예절지도자 양성과정 시작	- 예절교육연구회가 주관하는 지도자 양성교육 - 이병탁 부원장, 이승준 회장, 황진영 이사
8월 26일(화)~29일(금)	강릉 예맥아트센터	지역문화경영 중급과정	- 2014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최 - 사무국장 지역문화경영 중급과정 수료
8월 28일(목) 09:00	경기도 이천 실봉서원	예절체험학습	- 도림초등학교 학생 30명 예절 현장 교육 실시 - 이병탁 부원장 안전지도, 감독
9월 4일(목) 14:00	구리문화원 원장실	남양주 시의회 벤치마킹 방문	- 남양주 시의회 자치행정의원 5명, 의회 3명 - 상호 협력방안 제시(사무국장 브리핑)
9월 5일(금) 11:00	구리고등학교 사청각실	2014 전통성년례	- 구리고등학교 학생 170명 참석 - 원장(큰손님), 국장(집례) 예절회원 10명 참여
9월 19일(금) 11:00	거제도	2014 거제 전국합창대회	- 구리문화원 예다미 합창단 30명 참여 - 동상수상
9월 29일(월) 11:00	가명 운악스마일	제215차 이사회	- 선관위 구성, 개경사북원추진위원회 구성 - 문춘기 고문 등 전현직 임직원 35명 참여
10월 18일(토) 09:30~15:30	구리광장~동구릉	2014 구리 동구릉문화제	- 제24회 구리시민백일장 개최 9시30분 - 어가행렬(구리광장~동구릉) 11시~12시 - 전통민속공연(동구릉 재실) 12시~13시
10월 24일(금) 08:00	충남 논산	제48차 문화유적답사	- 명채고택-개태사-돈암서원 등 방문 - 구리문화원 이병탁부원장 및 회원 30명 참여
11월 4일(화) 11:00	보훈취폐	2014 임시총회	- 제7대 구리문화원장 선출 - 현/김문경 원장 당선
11월 21일(금) 17:00	경기 수원 SK아트리움	2014 경기 페스티벌 31	-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 문화축제 - 예다미, 진도북춤 참가(회원 80명 참여)
11월 28일(금) 15:00	행정복지센터	제19기 수료식, 발표회	- 구리문화학교 제19기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 - 원장 및 임직원, 회원, 시민 등 300명 참여
12월 18일(목) 18:30	보훈취폐	제216차 이사회	- 201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원장 및 임원 부부 70명 참여

2015 상반기 주요 행사

〈구리문화원〉

일시	장소	행사명	비고
1월 28일(수) 11:0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문화원 연합회 총회	-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심의 - 한국문화원 연합회장 선출 등
2월 16일(월) 10:00	구리문화원	자체감사 실시	- 허대정 감사 참석 - 문화원 회계, 육성기금 감사 실시
2월 24일(화) 11:00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원 총회	-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심의 -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선출 등
2월 27일(금) 11:00	보문취폐	제217차 이사회 제24차 정기총회	- 2014년 사업결산 승인 -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3월 16일(월) 11:00	고양문화원	북부원장단회의	- 2015년 상반기 사업현황 논의 - 원장, 사무국장 참석
3월 20일(금) 11:00	구리문화원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 2014년 사업결산 승인 -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월 16일(목) 08:00	강원 명월	제49차 문화유적답사	- 청령포-장릉-보덕사-김삿갓 계곡 - 문화원 회원 및 임직원 35명 참가
4월 24일(금) 18:30	보문취폐	제218차 이사회	- 동구릉 문화제 행사 참여 논의 - 원장 및 임직원 참석
5월 7일(수) 16:00	구리시청 시장실	왕, 세자 위촉패 수여식	- 어가행렬의 왕과 세자에 대한 위촉패 수여식 - 사무국장, 문화예술과장, 팀장 배석
5월 8일(금) 19:30	한강시민공원	유채꽃 축제 개막식	- 문화원(향토사, 매절, 시니어클럽)참여 - 원장, 임직원 참석
5월 11일(월) 15:00	구리시청 대강당	노은 김구식 선생 추모제	- 기념사, 업적소개, 예다이 공연, 기념촬영 - 유가족 및 보존단체 참가
5월 18일(월) 11:00	연천문화원	북부원장단회의	- 2015년 하반기 사업현황 논의 - 원장, 사무국장 참석
5월 16일(토) 09:30~15:30	구리광장 ~ 동구릉	2015 구리 동구릉 문화제	- 제25회 시민백일장 개최 - 어가행렬, 전통민속공연 주관
6월 10일(금)~13(토)	중국 북경 외	경기도 문화원 사무국장 연수	-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 사무국장연수 - 문화원형 및 도시재생 사례 현장답사
6월 26일(금) 18:30	보문취폐	제219차 이사회	- 하반기 사업 및 추진현황보고 - 원장 및 임직원 참석

구리문화원 문화학교 제20기 수강생 모집

구리문화원 문화학교에서는 문화를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구리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각 분야의 기초와 전문지식을 넓히고자 제20기(2015년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기간: 2015. 01. 05 ~ 2015. 12. 31
- 1분기(1월~3월) 2분기(4월~6월) 3분기(7월~9월) 4분기(10월~12월)
2. 등록기간: 수시접수
3. 수 강 료: 2015년 연회비 - 1만원
수강과목별 (월 1만5천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4. 신청접수: 구리문화원 사무국 ☎ 031)557-6383-4

※ 반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배강될 수 있습니다.
※ 강사와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강좌	강사	수강료(월)	수강시간
전 통 강 좌	가야금(초급)	박계화	30,000원	매주(화)10:00~12:00
	가야금(중급)	박계화	40,000원	매주(수)10:00~12:00
	경기민요	송은신	15,000원	매주(금)13:00~15:00
	대금	현보름	30,000원	매주(수)19:00~20:30
	모듬난타	이동열	15,000원	매주(목)10:00~12:00
	문인화(사군자)	김이문	15,000원	매주(화)13:30~15:00
	서예	김이문	15,000원	매주(화)10:00~12:00
	삼줄이춤	배정인	15,000원	매주(목)11:00~12:30
	진도북춤	배정인	15,000원	매주(목)09:30~11:00
	생활역학(초급)	조규문	15,000원	매주(금)09:30~11:00
	생활역학(중급)	조규문	15,000원	매주(금)11:00~12:30
	생활역학(직장인반)	조규문	15,000원	매주(월)18:50~20:20
	판소리, 북창단	김형욱	25,000원	매주(금)10:00~13:00
	풍물(기초)	류승표	15,000원	매주(금)09:30~11:00
	풍물(중급)	류승표	15,000원	매주(금)11:20~12:50
	풍물(전문)	류승표	15,000원	매주(수)10:00~12:00
	풍수지리(양택)	최광의	15,000원	매주(월)10:00~12:00
	풍수지리(음택)	최광의	15,000원	매주(월)13:00~15:00
일 반 강 좌	드럼	조수성	40,000원	매주(수) 1회 50분(10시~6시)
	밴드	조수성	50,000원	매주(목)11:00~12:30 매주(목)19:00~20:30 매주(목)20:30~22:00
	사진(초급)	이영천	20,000원	매주(화)09:30~11:00
	사진(중급)	이영천	20,000원	매주(화)11:00~12:30
	색소폰	전영훈	30,000원	매주(목)19:00~20:30
	오카리나	조현철	30,000원	매주(목)11:00~12:00
	우쿨렐레(초급)	조현철	30,000원	매주(목)10:00~11:00
	우쿨렐레(중급)	조현철	30,000원	매주(목)11:00~12:00
	통기타(초급)	박장복	40,000원	매주(수)18:00~20:00
	통기타(중급)	박장복	40,000원	매주(수)16:00~18:00

구리문화 소식

발행처 : 구리문화원

발행인 : 김문경

기획·편집 : 이병탁

감수 : 황진영

기획·인쇄 : 도서출판 현기획

발행일 : 2014. 12

비매품



<http://www.gurimh.or.kr>

 구 리 문 화 원

경기도 구리시 용구릉로 217-14 / T 031-567-6383-4
F. 031-563-3993 / E-mail | gurimh@empas.com